신차·중고차 구입은
제주은행 자동차대출
우대금리 이벤트 진행중 (~8월 31일까지)
제주은행 문의 : 1588-0079(7번)

참간 30 since 1989 주년
한라일보

제주골프회원권 거래전문
(주)탐라회원권거래소
TAMRA MEMBERSHIP EXCHANGE
문의 : 064)745-8884

漢拏日報 제8931호 제주의 대표 신문 ihalla.com 기사제보 750-2214 | 구독 750-2314 | 광고 750-2828 | 2019년 8월 23일 금요일(음력 7월 23일)

제주도 행정시장 직선제 '암초'

지난 6월 제출한 제도개선안 이르면 이달 중 결론
행안부 '불수용' 입장 견지… 의원입법 귀추 주목
"제한적 권한 행정시장 무의미" 여론… 난항 예고

2022년 지방선거부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제주도 행정시장 직선제 제도개선안에 대한 운명이 조만간 판가름 날 전망이다. 특히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의 '불수용'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정부입법이 물건너갈 것이라는 예상속에 강창일 국회의원이 의원입법 형태로 행정시장 직선제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2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7일 행정안전부와 국무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를 방문해 제출한 제도개선안이 빠르면 이달 중으로 반영여부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특별법 제19조에 따라 제주지원위는 도지사가 제출한 의견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통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개월 내 의견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뒤 검토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주지원위에 통보하게 된다.

현재까지 행안부의 입장은 '불수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미 제주지원위원회에 전달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불수용 이유는 시장 직선제가 특별도 도입 취지인 '조직의 슬림화'에 역행한다는데서 비롯되고 있다. 이 정책을 시행, 결정할 행안부는 행정시장 직선제는 선출직 기초자치단체장을 두지 않기로 한 특별자치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불수용 의견을 밝혔다.

따라서 최근의 분위기상으로는 사실상 정부입법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때문에 제주도는 23일 전성태 부지사가 국무조정실을 방문해 정부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설득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같은 기류속에 강창일 국회의원이 지난 20일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원회 질의를 통해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전향적인 검토를 강하게 주문하는가 하면 빠른 시일내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장 직선제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는 계획을 전했다. 빠르면 금주중에 발의할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사정은 녹록지 않은 형편이다. 행안부는 앞서 도의회 동의 절차를 밟을 당시인 지난 2월 제주도에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에 우려를 표하고 "주민투표를 거친후 제주특별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제시와 이번 제주지원위에 통보한 이유 등을 들어 섣불리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2006년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후 주민 참여 약화, 행정서비스 질 저하, 제주시-서귀포시의 지역 불균형을 초래했다는 문제가 제기됐지만 직선제를 통해 개선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으로 추진동력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다. 제한적인 권한이 주어진들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의 장으로서의 한계가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스럽지 못하다는 여론이 작용하는 셈이다.

결국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더라도 소관부처의 1차 관문은 돌파하기 힘들 것으로 보여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칠 공산이 커지고 있다.

조상윤기자 sycho@ihalla.com

복사열로 흐릿하게 보이는 항공기 오락가락 비날씨 속에서도 막바지 무더위가 기승이다. 비가 개인 후 무더위가 다시 시작된 22일 달궈진 제주국제공항 활주로 복사열이 피어 오르며 항공기들이 흐릿하게 보이고 있다. 강희만기자

정부 "지소미아 연장 안한다"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22일 NSC 상임위서 결정… 한-일 경제갈등 파장 주목

정부가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GSOMIA는 국가간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이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NSC 상임위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다.

정부는 일본이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청와대 측은 밝혔다.

1년 단위로 연장되는 GSOMIA는 90일 전 어느 한 쪽이 파기 의사를 통보하면 자동 종료된다. 오는 24일이 연장 여부 결정 시한이다.

하지만 이번 결정이 한미일 동맹에 미칠 영향과 한일 갈등의 장기화 등 부정적 효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지소미아를 통해 한미일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탐지하고 공동대응에 협력할 수 있는 만큼 우리의 안보에도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다. 북중러가 동맹을 강화하는 시기에 한미일 공조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일본이 우리의 결정에 대해 지금까지의 조치들을 철회할 가능성이 높아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추가 경제보복 조치 등이 이뤄질 경우 국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초소형전기차 보급정책 '가속'

올해부터 보조금 250만원→400만원으로 상향
차고지증명제 제외 등 혜택·편의로 구매 확대

제주특별자치도는 가중되고 있는 교통난과 주차문제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되는 초소형전기차 보급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2018년부터 전기차 보급차종에 초소형EV가 본격적으로 포함되면서 현재 3종의 초소형전기차가 보급되고 있다. 초소형전기차는 2인승 차량으로 일반 승용차의 절반 크기다. 주행거리는 최저 60㎞에서 113㎞까지로 도내에서 무난한 운행이 가능하며, 특히 도심 내 운행에 적합하다. 기존 차량 1대 주차구역에 2대 주차가 가능해 날로 심해지는 주차문제 해소에도 큰 기대가 되고 있다.

제주도는 이의 일환으로 정부 방침과 연계해 일반 전기승용차 보조금은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있으나, 초소형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은 2018년 1대당 250만원에서 2019년에는 150만원 증액된 400만원으로 대폭 상향시켰다.

초소형전기차는 보조금을 지원받을 경우 소비자의 실 구매비용이 600만~1000만원대로 일반 전기차 구매가격의 절반 이하로 경제적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이와 함께 차고지증명제 제외, 주차공간 확보 용이성 등 다양한 혜택과 편의가 제공되고 있다. 또 초소형전기차를 공공용차로 활용해 공무원, 도내 대학, 공기관 대상 공동구매 행사, 차량공유서비스 실증사업 추진 등 인식 확산을 위해서도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현재 초소형전기차에 대한 도민 인식과 보급률은 낮은 편이지만 전년도에 비해 구매비율은 2배 이상 증가했다. 앞으로 캠시스의 '쎄보C'가 9월 출시 예정에 있어 초소형전기차 보급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상윤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폭염 기세 한 풀 꺾여

최고기온 30℃ 이하 '뚝'

제주에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한바탕 쏟아진 가운데 당분간 최고기온도 30℃ 이하인 날씨가 이어지겠다.

21일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기압골의 영향으로 인해 성판악 110.5㎜, 삼각봉 154.5㎜, 성산 49.3㎜, 표선 50㎜, 신례 73.5㎜, 서귀포 47.5㎜, 금악 31㎜ 등 제주 전지역에 비가 내렸다. 비가 오전에 대부분 그치면서 이날 낮 최고기온은 제주 31.8℃, 서귀포 29.6℃, 성산 32.2℃, 고산 31.3℃등으로 무더운 날씨를 보였다.

23~24일은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만 많은 날씨를 보이겠다. 폭염의 기세도 한 풀 꺾여 아침 최저기온은 24~25℃, 낮 최고기온은 28~29℃의 날씨가 예상됐다. 낮 최고기온은 30℃ 이하의 날씨는 다음달 1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 사랑으로

http://www.lh.or.kr
ALL바른생각
서귀포성산 국민임대주택

서귀포성산(국민임대주택346호) 입주자 모집 공고일 2019.08.16(금)

우선공급 8월 27일(화)
일반공급 8월 28일(수)
당첨자발표 11월 21일(목)

입주예정월 : 2020년 11월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총 346세대
전용 26㎡ / 37㎡ / 46㎡

서귀포성산 국민임대주택 현장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1141-1 일원

접수 및 현장계약 체결장소

서귀포시 성산읍 일주동로 4024

LH 제주지역본부
1600-1004
LH청약센터 https://apply.lh.or.kr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http://www.lh.or.kr